2021년도 8차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위원회

일 시	2021년 12월 8일(금) 오후 7시 30분		
장 소	온라인		
주 최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참석	인원: 14명 (참석 8명, 위임 0명, 불참 6명)	참석	위임
	박영열 (피노키오. 개인. 운영위원장)	○	
	전주리 (산아래. 사무총장)	○	
	이성윤 (퍼령너굴. 개인)		
	최혁 (얼씨구. 조합대표자회의-어린이집 의장)	○	
	장복순 (수박. 전체교사회 대표)		
	이태경 (강풀. 기관회원 대표)		
	장영진 (안테나. 초등방과후 교사회 대표)	○	
	심명숙 (단지. 지역공동체학교 교사회 대표)		
	강현지 (달님. 조합대표자회의-어린이집 부의장)	○	
	차청환 (멋져. 조합대표자회의-어린이집 부의장)		
	한희종 (갈매기. 어린이집교사회 부대표)	○	
	문재운(페달, 조합대표자회의-초등방과후 의장)	○	
	목영숙(뜰에, 조합대표자회의_초등방과후 부의장)		
간사 : 정희진 (아라치, 사무국)	○		
안 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육아 어린이집 CCTV 논의 가이드라인 마련의 건 2. 공동육아 회원회비제도 회비납부 방법 중 CMS 확대에 대한 논의의 건 3. 회원가입- 화성시 아이가행복한유치원 		
보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2021년 11월 활동보고(별첨1) 2.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2021년 11월 회계보고(별첨2) 3. 주요보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1 공동육아 한마당 진행 보고 2) 대선정책-유보일원화 3) 기타 		

■ 2021년 12월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 논의안건

1. 공동육아 어린이집 CCTV 논의 가이드라인 마련의 건

- ❖ 전주리 사무총장이 논의 제안 배경을 설명.
- ❖ 모든 회의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
- ❖ 정답이 없고 조합마다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논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다.
- ❖ 해마다 CCTV에 대해 깊은 논의와 결정을 해야 한다면 피로도 높을 것 같다는 우려는 있다.
- ❖ 병원 CCTV에 대해 진료실이 아닌 수술실 CCTV만 논의하는 것처럼 교사의 인권과 사생활에 대해서도 가이드와 논의가 필요하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은 등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어떻게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논의되기를 바라며 교사가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 위해 양육자들도 함께 고민하기를 바란다.
- ❖ CCTV 논의 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교사들의 상실감. 교사 대 아동 비율, 휴게 시간 및 공간의 보장 등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 ❖ 가이드라인 안에 근본적 가치들이 담겨 있으니 이 가이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 ❖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공동육아어린이집의 구조(일일아마, 열린 구조 등)가 장점으로 발휘되기 어려워졌다. 대안적인 소통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 사무국에서 모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교사회가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면 좋겠다. 의견을 모아 주시길.
- ❖ 개별 교사회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 ❖ 교사회 전체 논의를 모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먼저 임원진, 대표단부터 논의를 시작해 다음 운영위원회 전에 가이드라인을 추가해 보도록 하자.

2. 공동육아 회원회비제도 회비납부 방법 중 CMS 확대에 대한 논의의 건

- ❖ 전주리 사무총장이 ‘회원구조정비를 위한 논의모임’에서 논의된 내용(회비이자 후원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회비의 성격, 현재 회원회비구조의 어려움과 CMS 시행 현황, 대안 및 제안 내용 등을 보고하며 CMS 납부 방법을 추가로 제안.
- ❖ CMS로 내면 조합비 운영에 있어서 명확하고 편리할 것 같다.
- ❖ 졸업 후에도 후원하면서 회원으로 남을 수 있다.
- ❖ 공동육아 회비는 조합 가입과 함께 시작되지만 납부 방법이 다양하면 좋겠다.
- ❖ 회비 누수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사무국의 회비 및 회원 관리 업무는 추가되겠다.
- ❖ 일제히 시작하기는 어려우므로 희망하는 곳부터 CMS 납부 제도를 확대해 가기로 하자.

안건 3. 회원 가입- 아이가 행복한 유치원

❖ 전월 회원 가입 승인에 동의.

자료 별첨)

보고안건

1.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2021년 11월 활동보고(별첨1)

2.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2021년 11월 회계보고(별첨2)

3. 주요보고

1) 2021 공동육아한마당 평가

- ❖ 전주리 사무총장이 한마당 사전 행사와 당일 행사에 약 80여개 조합이 참여한 현황과 당일 600여명 참가로 성황리에 한마당이 진행되었음을 보고.
- ❖ 운영위원이 소속된 각 터전별로 행사(합창제, 전시마당, 놀이마당)에 참여한 세부 내용을 공유.

2) 2021 대선 정책 - 유보 통합 논의 진행 현황 보고

- ❖ 전주리 사무총장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유보 통합 논의 진행 현황에 대해 보고.

기타

- ❖ 다음회의: 2월 9일(수) 7시30분, 장소: 온라인(단, 코로나 상황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논의 안건

안건 1. 공동육아 어린이집 CCTV 논의 가이드라인

자료 별첨)

안건 2. 공동육아 회원회비제도 CMS 확장의 건

자료 별첨)

안건 3. 회원 가입- 아이가 행복한 유치원

자료 별첨)

■ 보고 안건

1.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2021년 11월 활동보고(별첨1)

2.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2021년 11월 회계보고(별첨2)

3. 주요보고

1) 2021 공동육아한마당 평가

<행사 개요>

- 1) 일 시 : 2021년 11월 27일(토)
- 2) 장 소 : 온라인을 이용한 한마당
- 3) 행 사 명 : 2021년 제11회 공동육아 한마당에 초대합니다
- 4) 주 최 :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 5) 공식 슬로건(가제) : 공동육아 미움이 있다, 마음을 잇다.
(이슈/코로나 시대 “연결과 위로”, “함께해서 괜찮아”)

6) 공동대회장 :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이사장 정병호

7) 추진위원회

- 추진위원장 : 박영열 운영위원장
- 추진위원 : 이성윤 운영위원, 홍원표 운영위원, 전주리 사무총장
최혁 공동육아조합대표자회의(어린이집)의장
강현지 공동육아조합대표자회의(어린이집)부의장
차청환 공동육아조합대표자회의(어린이집)부의장
문재윤 공동육아조합대표자회의(초등방과후)의장
목영숙 공동육아조합대표자회의(초등방과후)부의장
장복순 공동육아전체교사회 대표
한희종 공동육아어린이집교사회 부대표
이태경 공동육아국공립어린이집 대표
장영진 공동육아초등방과후 교사회 대표
심명숙 지역공동체학교 교사회 대표
- 추진실무팀 : 팀장 한연정(하늘)
간사 김명진(베베)
- 연락처 : 사무국 02-323-0520, gongdong@gongdong.or.kr

8) 2021 제 11회 공동육아한마당과 관련한 온라인 소통 공간

(<http://cafe.gongdong.or.kr/hanmadang>)

- 공연신청, 질의응답, 건의사항, 사회자 및 공연자 추천등

<행사의 의미>

① 목표 및 방향

- 코로나 시대 “연결과 위로”, “함께해서 괜찮아” 이슈로 보다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며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전국 공동육아 식구들이 모두모여 함께하는 한마당
- 나눔과 연대라는 공동육아협동조합의 가치를 서로 나누고 즐기며 어우러지는 한마당
- 아이와 어른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동육아 가족의 한마당
- 아이와 어른, 부모와 교사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어우러지며 나누는 한마당
- 전국의 공동육아 회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한마당

② 슬로건

공동육아. 마음이 있다. 마음을 잇다.

<세부내용>

① 2021 공동육아한마당은 어떻게 열리는 살펴볼까요?

2018년까지 전국의 공동육아 가족이 한마당에 모여 준비하고 참여하는 자리였다면 코로나 시대 “연결과 위로”, “함께해서 괜찮아”라는 이슈를 가지고 온라인에서 축제를 만들어 가지려고 합니다.

② 2021 한마당 미리 만나요.

내용	참여인원
스로건 공모	24
배너만들기	72(어린이집, 방과후, 지역공동체학교)
미션놀이	273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2

③ 당일행사

내용	참여인원	
개회식	291	
접속인원	300명내외	
전시마당(“우리는 이런 것도 하고 논다”공모전)	23조합	120
온라인합창제	13조합	100~250
공동육아 당근 마켓	진행못함	
놀이마당1 종이접기(4회기)	최대 59	
놀이마당2 가족과 하는 줌놀이, 텔레파시게임(3회기)		
놀이마당3 동화책 들려주기		
놀이마당4 초등놀이마당(줌에서 하는놀이)(2회기)		

*가족 단위로 참여하거나 단체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 600명 내외 참여한 것으로 추산됨.

<평가>

*사무국

- 양적 평가가 전부는 아니지만 회원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가장 큰 의의였으므로 참여 규모에 대해서 잘 산정하고 평가해 보면 좋겠다.
- 메인행사 시작 시점쯤 최대 인원 291명대, 합창제 약 100~250명, 놀이마당 명, 전시마당 최대인원 79명, 전체 접속 인원 300명 내외인데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600명 내외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 인원뿐 아니라 조합의 수도 중요하다. 몇 개 기관이 들어왔는지 한 번 확인해 보고 특히 오지 않았던 곳들에게는 결과도 잘 챙겨서 보고 드리도록 하자.
- 터전 80곳 정도가 배너 만들기, 놀이영상, 합창제 등에 직접 참여했다. 사전에 모집해 참여하게 한 것은 참여를 위해 잘한 것 같다. 어린이날 행사 없는 터전들이 많으니 한마당을 어린이날 행사로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터전에서 이런 제안들이 있었다.
- 온라인이라면 봄철에 하는 것도 좋겠다.
- 합창제 사회자가 현장에 없어 상황 변수가 있을 때 대처가 쉽진 않았다. 수상 때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폐회식이 30분 예정이었는데 10분 만에 마치게 되었고 60여 명이 안 나가고 기다렸다. 이런 부분에서 계획이 더 잘 될 필요가 있다.
- 갑작스러운 사회자 교체, 진행자 불참 등으로 변경이 생긴 부분에 대처는 했지만 현장에서는 당황되고 어려움이 있었다.
- 운영위원들과 함께 하는 부분이 진행에도 도움이 되고 참여에도 큰 도움이 된다. 회원의 행사라는 걸 명확히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주도하도록 해야겠다.
- 온라인 대규모 행사가 처음이라 어려움이 있었다. 운영위원회는 이전 경험이 있고 교사회도 한마당 경험은 있다. 그러나 부모들은 한마당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한 것도 대단하다.
- 이번에 뭐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 것. 우리 안에도 상이 없었던 게 문제다. 이번에 온라인을 해 봤기 때문에 우리도 더 잘할 수 있겠다.
- 다음에는 온라인이라면 실무팀을 자원봉사로 뽑고 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지역실무팀은 의무 중심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
- 놀이마당은 매우 잘 진행되었고 현장에서 담당하신 분들이 많이 애써주셨다.
- 한마당 안 했다면 한마당 경험 없이 터전 졸업하는 분들도 생겼을 텐데 온라인이지만 한마당 경험을 모두에게 줄 수 있었다는 점은 좋았다.

한마당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홍보물과 양상들이 필요했음.

2) 2021 대선정책- 유보통합

- 유보일원화/무상/의무/기간학제/유아학교 논의가 혼재되어 진행됨에 따라 부모단체 중심으로 모여 다시 논의 중.
- 금요일 기자회견 및 피케팅 계획중.
- 참여단체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학부모회,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정의당 연수지역위원회 지방자치위원장,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혁신학교

학부모넷 등

- * 시간: 이번주 금요일 오전 11시
- * 장소: 청와대 앞 분수 광장(“미래의 대통령에게” 컨셉)
- * 순서: 기자회견문 낭독 - 각 단체 지지 발언
- * 기자회견문 작성은 임미령 대표, 현수막과 피켓 초안 준비는 사격정에서 준비
- 결정사항 : 0-5세 교육부로 일원화해야 하는 필요성과 큰 방향에 대해서 발표한다.
일원화가 왜 필요한지 강조한다. 이견이 발생하는 구체적 정책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넣지 않는 것으로 하자.

• 현재 유보통합 논의 상황

이슈	고민지점	현재 의견 취합중인 방향
유보일원화	-교육부 통합의 방향에 대한 우려	-모든 아이에게 동일한 지원 평등한 출발선이 보장되어야 한다
무상	한유총 사립유치원의 로비 진행중	공공성확충의 조건 필요
의무교육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교사노조에서 주장)	학령기 편입 우려/반대
기간학제	0~2세영아학교/3~5세 유아학교 or 6세 초등편입, 조희연	영유아분리 반대, 이른 학제편입 우려
유아학교	강득구 의원 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	학교라는 언어의 학제편입 우려/반대

• 현재 논의 방향은 부처를 먼저 정하고 이후 논의하는 것으로 해야 이번에는 가능해진다고 생각하여 통합부처 확정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 **공동육아의 고민지점- 교육부 중심의 논의에 대한 우려**

아동수 줄어드는 상황의 행정낭비, - 교육부 VS 복지부 VS 제3의부처 신설

- 교육부로 통합 시 긍정점
 - : 세계적인 추세
 - : 교사의 권리 향상에 도움이 될까
 - : 장애통합 특수교사 배치 등 예산 확보 등에서 유리
- 교육부 통합 시 우려점
 - : 유치원 방과후체계로 갈 우려- 학령제 편입, 특별활동 부활 가능성.
 - : 사협과 협동 등 다양한 대안형태 인정 여부 부각 필요
 - : 어린이집의 종일/틈새돌봄이나 양육자와 지역에 열린 함께 돌봄의 사례의 장점을 어떻게 견인할까 고민 필요